

“코로나19 확진자, 9일 오후 6시 이후 투표함에 직접 투표”

“방역 당국 일시 외출허가 받아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서 투표”
 “별도 장소서 대기하다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이후 투표”
 선관위 “사전투표 규모 예측·대비 못해...정보제공도 미흡 사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확진자 등)’도 오는 9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일반 선거인과 동일하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선거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관리 대책’을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는 선거일인 9일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이후 7시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 등은 오후 6시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후 해당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중견 임시기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하던 방법과 달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사전선거 때는 임기투표소에서 본인확인서 작성, 임시기표소 기표, 투표지 운반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전달, 투표사무원이 참관인 입회 하에 투표함에 투입 등순으로 진행됐다.

반면 본선거에서는 일반 선거인과 동일하게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 확인, 투표용지 교부, 기표소 기표, 투표함 직접 투입 등 순서로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분리된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투표하게 된다.

중앙선거위는 “중앙선거위가 결정한 선거일 확진자 등 선거인 투표관리 대책은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문제점을 원천 차단하고 완벽한 투표관리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거위는 위원 일동 명의 보도자료에서 “이번 확진자 등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와 관련해 그 사전투표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으며 임시기표소 투표에 대한 정보제공 등도 미흡했음을 사과드린다”며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위원장 및 위원 모두는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선거위는 “중앙선거위는 3월5일 실시된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이 선거일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도 알렸다. 그러면서 “확진자 등에게 투표안내 문자메시지 등으로 투표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TV·라디오·신문 등의 각종 프로그램·자막·광고 등을 활용해 선거일 정확한 투표절차 전달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중앙선거위는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는 선거법 제151조 2

항을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별도 투표함을 운영하지 않았다.

투표사무원과 참관인이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아 투표소마다 단 하나만 설치된 투표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

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선거법 제157조 4항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에서도 선관위가 선거법 제151조 2항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지 않아 ‘전체 선거 자제가 하나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다(이해식 의원)’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관위의 관리 부실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재현기자



대전 투표용지 이상유무 확인

20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7일 오전 광주 북구 북구청 3층 강당에서 투표관리원들이 선거에 사용될 투표용지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전남도, ‘러시아-우크라이나 대체’ 베트남 시장 개척 나선다

수출상담 참가기업 모집...15개사 선정 현지 기업 매칭

전남도는 러시아 경제제재로 어려운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대체시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시장개척 수출상담’ 참가 기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인구 1억 명인 베트남은 코로나19 확산 상

황에서도 소비심리가 꾸준히 성장하는 신흥 소비시장이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아세안 진출 전초기지다.

모집대상은 지난해 수출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전남도는 현지 시장 진출 가능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정도를 감안해 15개 사 내외를 선정해 5월 중 현지에서 수출 상담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 동남아시아사무소는 상담 전 구매력과 재무상태가 건전한 베트남 현지 수입기업을 발굴한다.

베트남 시장 진출을 바라는 기업은 오는 25일까지 전남도 수출정보망 누리집(www.jexport.or.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증빙서류는 전남도중소기업진흥원에 전자우편(kimsh_1224@jepa.kr)으로 별도 제출하면 된다.

확정된 참가기업은 오는 5월 8일부터 12일

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을 직접 방문해 현지 수입기업과 수출상담을 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국제협력관실(061-286-2451)이나 전남도중소기업진흥원(061-288-3872)에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한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도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베트남 시장개척 수출상담 지원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는 기업의 대체시장 발굴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구례 노고단 일주도로 오는 11일 통행 재개

구례군의 군도 12호선 노고단 일주도로의 통행제한 구간이 11일부터 풀린다.

7일 구례군에 따르면 노고단 일주도로 천은사 주차장~성삼재~달궁삼거리 구간 14.0km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동절기 통행을 제한했다.

애초 통행제한 기간은 2022년 3월 31일까지이었으나 봄철 기온상승으로 결빙위험이 감소하고 봄꽃 개화시기 상춘객 방문 증가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1일부터 통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대통령선거로 9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